



“땅위에는 400년 전 에도의 거리, 구름 위 하늘 뒤엔 천공의 성” 치유의 땅과 마주하다. 다카야마

간이 멈췄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 말 뿐이다. ‘작은 교토’라 불리우는 산중 도시 다카야마(高山)는 일본 감성 가득한 일본의 보물과도 같은 땅. 에도시대 당시의 거리가 선사하는 이국적 정서에 이어서는 북알프스 산악을 로프웨이로 오르는 신비로운 절경의 공중산책까지 기다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본 내용 가득한 온천까지 다카야마를 찾은 이의 심신을 위로 하니 멀고 먼 다카야마까지 발길을 한 여행자의 감동의 김탄사는 그칠 줄을 모른다.

| 이상직 기자

기후현에 자리한 다카야마(高山)라는 이름은 낯설다. 높을 고(高), 빼 산(山)자를 쓴 그 한자이름 그대로 높고 깊은 산중에 자리한 도시가 이곳 다카야마다. 물론 가는 길도 쉽지 않은 않다. 여간 일본여행 리피터가 아니라면, 더불어 일본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가 아니라면 선뜻 용기내지 못할 곳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다카야마는 매력적이라는 역설이다.

다카야마가 속한 기후현의 아이콘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갓쇼즈쿠리 전통가옥인 시라카와고가 익숙하고 다카야마는 그 관문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많지만 다카야마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한다면 여태껏 코앞에서 놓친 다카야마의 매력에 땅을 찔지도 모를 일이다.

기후현 다카야마로의 여행 관문은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이다. 일본 중앙부 주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아이치현 나고야역에서 JR특

급열차 히다호를 타고 2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한다. 하지만 지루함은 없다. 나고야 도심을 출발한 열차는 2시간 여 동안 들과 산을 넘어가며 정취 풍경이 바뀌듯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의 열차가 되니 말이다.

특급 히다호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은 교토라 불리우는 다카야마의 거리가 이방인을 맞이한다. 1000년 이상 황궁이 있던 일본의 옛 수도 교토의 모습을 쑥 빼닮았다고 해서 붙은 다카야마의 별칭으로, 현재 까지 16세기 말에 건축된 400년 이상 된 가옥들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흔적은 도시자 거리다.

일본 어디나 있는 그저 그런 거리가 아니다. 세계적 명성의 여행가이드북인 프랑스 미술행 가이드에서 최고 랭크인 별 세개를 획득했고, 2009년 발간된 미술engan에서 ‘시간을 내서 여행할 만한 가치 있는 관광지’ 17곳 중 하나에 꼽혔을 정도니 여행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심은 일찌감치 접어 두어야 좋다.

여행자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전통거리 는 JR다카야마역에서 걸어서 10분 여, 다카야마 시내를 흐르는 미야강 동편 산마치스지(三町筋)는 자그마한 가게들이 연이어 자리한 다카야마의 관광 메인스트리트로, 약 400년 전 거리의 일본을 염울 수 있는 대표적인 거리다.

거리는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옛 공예품을 파는 가게와 여관, 일본 전통술 양조장, 항토음식점 등이 들어서는데 건물은 대부분 300~400년 전과 같은 상태로 보존되어 턴성을 자아낸다.

전통거리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각색이다. 산마치스지 내 양조장에서 기념품을 이어온 사케를 시음해 볼 수 있고 전통 목공에 공방에선 에도시대의 정취를 담은 장식품들이 관광객들의 지갑을 유혹한다.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도 빼놓을 수 없다. 다카야마 시내에 자리한 온천여관에 숙박하면 무료로 산책용 유카타를 대여해 주는데, 유카타에 전통 복제신발인 게타를 신고 산마치스지의 전통거리를 걷노라면 기분은 이미 400년 전 에도시대의 다카야마로 전이되고 만다.

산마치스지의 거리는 작은 교토라는 별명처럼 길들이 모두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짜여있다. 사람들이 걷는 길들도 400년 전 그대로다. 안내를 맡은 히다·다카야마관광 컨벤션협회의 고마야 요시아키 사무국장은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전기 가로등이 세워진 것을 제외하면 에도시대와 달

라진 것이 거의 없다. 오죽하면 에도시대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지금의 다카야마 산책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인다.

을 겨울 다카야마를 찾는 이들이라면 한겨울의 라이트업 이벤트도 기다리니 제격이다. 오는 2월 말까지 전통거리의 심볼로 자리한 붉은 나카바시 다리 주변으로 경관조명이 불을 밝혀 몽환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다카야마의 풍경과 조우할 수 있다.

다카야마진야 필두로 거리 전체가 박물관

400년 전 역사를 탐미하는 여행은 산마치스지의 산책으로 끝날리 만무하다. 해발 400m에 자리한 산진도시 다카야마 내에는 당시의 역사를 대신하는 갖가지 역사명소들이 자리하니 살아있는 박물관과 진해없다.

그 대표작은 산마치스지에서 멀지 않은 다카야마진야(高山陣屋)다. 다카야마진야를 한 마디로 소개하면 에도시대 당시 다카야마 일대를 관할했던 관공서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역사는 도쿠가와 막부가 통치하던 16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카야마를 관장하던 영주였던 카나모리는 막부의 직할령 선포로 영주로서의 자리를 내주었고,

더불어 그의 별장까지 관공서로 내어주게 된다.

진야는 그렇게 176년 간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서 파견된 군다이(郡代·한국의 원에 해당)의 집무실이자 사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현재의 다카야마와 기후현 일대를 통치했는데, 놀랍게도 당시의 건물과 사적들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현재는 일본 유일의 현존하는 진야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다카야마를 찾는 이들에게 당시의 역사를 전하는 아이콘이 되고 있다.

불거리는 단연 당시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건축물이다. 진야 본관으로 들어오면 군다이를 비롯한 관리들이 집무와 회의를 하는 오오하라마(大広間)를 비롯해 재판 및 죄를 별하는 공간인 긴미도코로(吟味所), 그리고 군다이와 그의 가족, 및 하수인들이 생활했던 관사, 그리고 세금대신 거두어들인 연공미를 보관하는 일본 최대의 쌀곳간인 오쿠라(御蔵)까지 당시의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다.

다카야마진야를 즐기다면 지붕에도 주목해 볼일이다. 지붕은 일반적인 기와가 아닌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백나무를 사각 판형태로 잘라 차곡차곡 포개어 지붕을 엮



다카야마 전통거리

는 시노부키(熨斗木)라는 양식으로 완성되었다. 다카야마 일대는 목재의 산지로서 고가의 기와보다 경제적으로 지붕을 만들 수 있어 나무소재의 시노부키 양식이 주를 이루었다. 다카야마 거리의 오랜 건축물 모두 일본의 흔한 기와지붕이 아닌 편백나무의 판을 겹쳐 만큼 시노부키의 양식을 띠고 있으나 다카야마의 고건축을 이해하는데 좋은 텁이 된다.

즐거운 역사산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카야마의 지주계층인 단나슈(但那衆) 중 하나였던 마초모토 가문의 당시 저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초모토씨 저택(松本家住宅)’은 당시 약제상으로서 부를 축적한 상인의 거대한 저택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어 이채롭고, 마찬가지로 금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구사카베 가문의 당시 저택과 가문의 콜렉션을 만날 수 있는 ‘구사카베민예관(日下部民芸館)’은 어느 작은 박물관 못지않은 수장품이 가득해 당시의 다카야마의 상류층의 삶을 엿볼 수 있어 보지 않으면 후회가 따른다.

가족들과 함께 캐주얼한 감각으로 다카야마의 역사를 돌아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산마치스지에서 가까운 ‘히다다카야마 역사박물관(飛騨高山まちの博物館)’이 추천된다. 성하마을 다카야마의 성립과 정과 변성의 역사를 다양한 미술 부장품으로 소개하는 도시박물관으로, 7개의 옛 창고건물을 전시관으로 활용하여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듯한 유니크하고 모던한 전시레이아웃이 매력적이나 옥심내불만하다.

다카야마가 속한 기후현의 명물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의 합장양식 전통 가옥도 다카야마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로프웨이는 제 1로프웨이(신호타카이)은 천역-나베다이라공원(해발 1,117m)와 제 2로프웨이(시라카바다이라역-니시호타카이 구역; 해발 2,156m)의 2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일본 최초의 2층 로프웨이 곤돌라를 만날 수 있다는 점

다카야마진야



니시호타카이 구역 정상의 옥상 전망

